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금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 불리는 추석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배순서〉

- 인도: 가족 중 어른
- 묵 도 다함께
- 성 시 시편 1:1~6 인도자
- 찬 송 305 다함께
-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 중(다함께)
- 성경봉독 행 17:16~34 인도자
- 메시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인도자
- 찬 송 404 다함께
- 주기도 다함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행 17:16-34)

본문에서는 사도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 아테네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BC 5세기부터 헬라의 국가도시로 편입된 후에도 지적 독립을 누리며 자유의 도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지적 유산과 문화와 예술의 산실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세계 최초의 민주국가를 세우고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 사도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17:1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아테네에 있는 신들은 그 도시의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테네사람들은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커스, 넵툰, 다이아나 등 신들의 신상과 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② 헬라의 찬란한 건축 양식, 역사와 지혜의 도시에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지만, 사도바울의 눈에는 도시에 세워놓은 우상들만이 보일뿐이었습니다. ③ 오늘 성도는 배우자를 구하는 일, 취직하는 일, 전공과목을 택하는 일,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신앙적 안목을 갖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도바울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바울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17:1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격분(파국시노)이라는 말은 발작, 졸도를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감정적 폭발이나 흥분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슬픔과 노를 발했습니다. ②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혐오감을 갖고 거룩한 질투심의 분노를 토해낸 것입니다. 이 격분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③ 세계 제1의 문화도시요, 학자와 지식인이 가득한 아테네를 사도바울은 무지의 도시, 무능한 백성들이 있는 도시,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꿈과 환상이 없는 백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사도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17:1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① 에피쿠리안(BC 270년)들은 인간 사에 관심도, 영향력도 없는 신을 섬겼으며 이들은 세상은 우연히 생겼으며 사후 심판도 없다고 하면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를 강조하며 다녔습니다. ② 스토아(제노 BC 266년)와 학자들은 범신론을 주장하며 운명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며 다녔습니다. ③ 사도바울은 두루 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4. 사도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God the Creator, 17:24): 사도바울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② 생명의 보존자이신 하나님(God the Sustainer, 17:25): 하나님 자신은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골 1:17, 롬 11:36). ③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God the Ordainer, 17:26-27):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공간을 정하시고 역사와 영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④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God the Father, 17:28-29):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⑤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God the Judge, 17:30-31)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사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롭고 귀한 추석에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6 성경통독사경회

10월5일(목)-7일(토) 3일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 죽은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린다고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이때 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우리교회는 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구약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

성경통독사경회는 10월5일(목)부터 7일(토)까지 3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계속된다(단, 7일은 오전까지). 사경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낭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동안 일체

잡담을 금하고 눈으로 글씨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또한 색연필이나 형광펜 등을 준비하여 은혜를 받는 구절에 표시를 하며 읽으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

등록은 사무국에서 받으며 등록비는 10,000원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며 아멘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추석연휴가 되도록 기도한다.

2006 사명자 대회 임박

기도하며 이웃에게 전도하는 대회로...

15년전 교회설립을 준비하며 50일 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던 그 때를 감사하면서 우리교회는 매년 교회 설립기념일(11월 넷째 주) 전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명자대회는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이웃에게 전도하는 기도와 전도 대회이다.

성도들은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5대 기도제목과 갖고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4시간 연속기도를 드리고 매일 오전 오후 10시에 2분간 열열이 기도틀 드리며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여 전도대상자 구원을 위한 도고를 한다. 그 외 교회적으로 혹은 교회학교 별로 다양한 순서를 마련하여 전도에 나선다.

한편 사명자대회 본부는 5대 기도제목과 조직을 발표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하는 제사장으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한다.

2006 사명자대회 조직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 도: 서병철 목사
- 진행분과: 최광성 집사
- 전도분과: 김금준 집사
- 교육분과: 최양진 집사
- 재정분과: 오치열 집사
- 본부장: 하영수 장로
- 홍보분과: 신동기 권사
- 기도분과: 윤명구 집사
- 안내분과: 김진환 집사

제39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 10월10일부터 연습

제39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 준비가 시작된다. 연습시작은 10월10일(화) 영광교회 교육관 4층에서 시작되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6시30분 두 차례씩 실시된다.

찬양대원 등록도 10월 10일 연습시작 전에 받는다.

제39회 메시아 합동 연주회는 12월13일(수)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순복음 인천교회(담임: 최성규 목사)에서 주관한다.

찬양으로 영광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참여 바람 문외는 한종우 집사(찬양위원회, 011-9717-1690)에게 하면 된다.

고(故) 김사무엘 장로님을 추모하며



아버지 같은 김사무엘 장로님, 형님 같은 장로님, 저를 만날 때마다 김장로 서울교회 장로된 것 큰 책임지는 거야. 잘할 줄 믿지만 잘하라구!"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으시며 늘 다정하셨

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을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재건의 초석을 놓고 기초를 든든히 한 경제계의 별로 김장로님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공직에 계실 때도 나라 경제 재건을 위한 집념이 대단하셨습니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어른이시고 불의에 타협을 모르는 고집의 공직자이셨습니다.

서울교회에 늦게 발을 들여놓으셨다고 후회를 많이 하셨고 큰일을 못하고 은퇴하게 되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특히 세계선교를 위한 열정과 꿈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김사무엘 장로님
어째서 장로님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아픔은 찾아볼 수 없고 기쁨과 감사만 넘쳐도록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신앙과 함께 강직하고 불의에 타협할 줄 모르는 고귀한 성품은 누가 주신 선물이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을 때에도 근심 걱정하시는 표정이 하나 없이 평안하고 평온한 모습만 보이시면서 죽으면 천국갈 수 있으니 걱정 없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부족한 저로서는 장로님을 향해 존경심만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인자하시고 곧으시고 웃음이 해맑으신 장로님을 기억 속에서만 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다짐을 장로님께 드려봅니다. 우리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두고두고 장로님의 신앙과 삶에 내 삶을 접목하여 살겠습니다. 서울교회에 깊은 사랑을 쏟아놓으신 그 열심과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날을 약속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김사무엘 장로님 편히 잠드시옵소서.

2006.9.30

서울교회 장로 김광신

† 행동강령 †

- 1) 바르게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백성의 위로자가 되자.
- 2) 신행일치의 삶을 실천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자.
- 3)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실천하자.

† 기도제목 †

- 1) 우리는 사명자로서 먼저 허물 많은 나 자신과 가정과 국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 나게 하옵소서.
- 2) 우리는 백성의 위로자로서 절망 중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 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뿌리를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잃은 양을 찾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태신자를 인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 5)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혼돈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통독사경회를 앞두고

성경통독 사경회를 앞두고

한상은 목사



어느 날 저는 대학원 도서관 서고에서 한 전집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제가 전공하던 학문에서는 그것이 학교 수업이든 그 외의 장소든 빠지지

않고 논의의 중심이 되는 학자의 영문판 전집이었는데,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서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책을 대출해서 읽었을까? 살펴보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학자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이 정통한 것처럼 나서던 분들 중 누구의 이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출자 명단에는 당시 철학과 교수이었던 분이 수 년 전에 빌렸던 기록만 있었고, 그 후에는 사람의 손 닿은 흔적 없이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이 해야만 하고, 정통해야 하며, 더 깊이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성경에 먼지가 쌓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누구든지, 비록 목사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흐름을 알게 되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서울교회는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에 성경통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독하며 한 단어나 구절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 번에 한 책 혹은 그 이상을 통독하는 것 역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구조와 흐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통독 사경회에도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4대가 함께 하는 한가위

노재균(대학부)

한가위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의 명절입니다.

비록 추수는 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절실한 감사의 제목은 바로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할머니와 증조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큰 집이기 때문에 한가위가 되면 어느 집보다 많은 일가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모입니다. 할머니께서 4남 2녀를 두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내외분과 고모들 그리고 각 집안의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도란거림과 복잡 거림으로 한가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가장 어른이신 증조할머니로부터 가장 어린 사촌동생까지 4대가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

정의 기도제목은 우리 가족 중 마지막 불신자였던 증조할머니께서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불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던 증조할머니셨기 때문에 명절에 온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면 항상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으실 것만 같던 증조할머니께서도 두 해 전 우리 집으로 오신 후에는 차차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으신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가위 풍경은 다른 모든 풍성함을 앞서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동생들로부터 증조할머니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가 있기에 우리 가족의 한가위는 더욱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2006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영수 장로(사명자대회 본부장)



사랑을 둘러봐도 막힌 벽이요, 도움을 손길은 고사하고 의지할 곳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물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다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요 11:40)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괴로움의 나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씨를 뿌리되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언제 결실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실지 알 수 없기에 현실의 분함과 괴로움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50일간의 기도 끝에 탄생한 서울교회가 열다섯 번째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구별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전력을 다하여 순종해야 하는 우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자회 틈틈이 음식을 싸들고 아파트 관리실을 찾아다니며 대접하는 정성은 뜨거운 전도의 사명 때문이며, 교회에 갓 등록된 다락방 식구와 함께 온 종일 햇볕에 그을리며 정성을 쏟은 것도 성도를 섬기는 사명 때문이요, 사업체를 옮겨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친 것도 몸 된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 받은 자가 품기는 주님의 향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손에 쥘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 기적 같은 영광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도 우리에게 있는 불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겸손히 주님께 드리듯 미 자립 교회를 돕는 순종으로 수 많은 생명을 살리고도 남은 영광을 맛 본 백성들입니다.

이 영광에 동참한 서울교회 성도들은 열다섯 번째 맞는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또다시 마음과 뜻을 정하여 기도와 전도운동에 순종함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전도학교를 수료하며

새롭게 빛어지는 나



**이혜경 집사(13교구,
19기 화요전도학교 훈련자)**

제가 화요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문서전도팀 지도 목사님의 권유로 전도를 제대로 배워 볼 생각에서였습니다. 신앙생활 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던 중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70인 전도대원이 된다는 건 제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전도학교의 훈련생으로 공부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훈련생을 교육시키는 훈련자로 쓰고 계십니다. 훈련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학기 12주 과정을 마치고 처음 전도를 하면서 저는 30년 간 절에 다니셨다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분은 제가 전도에 관한 복음 제시를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고 마지막에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님과 의논하여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제게 전도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할머니

를 만나지 못했었는데 우리 교회 경로대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모시고 오려고 또 다시 방문했을 때 할아버님도 함께 볼 수 있었고 집안에 들어가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말씀이 할머니는 서울교회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시간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우리가 받은 축복 등에 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할아버님이 성당에 나가시게 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매주 2시간 전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두 가정 정도를 대신자로 품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전도를 하다가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 할까봐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빛어 가고 계십니다.

처음 훈련자가 되었을 때에는 전도 열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저의 생각과 모습을 빛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과 추수 감사절

결실의 계절이면 우리는 추석 명절과 추수감사절을 떠올리게 된다.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농경문화 민족으로서 우리네 조상들은 농사에 필요한 자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자연을 지배하는 신들을 잘 공경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의식이 짝 뜨게 되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은 일 년 동안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신라의 가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추수감사절은 1622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내린 청교도들이 극심한 곤란중에 옥수수 등을 심고 간절한 기도와 수고로 풍성한 열매를 얻었을 때 드렸던 감사예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의 기원은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출 34)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맥추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이며 수장절이라고도 불린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 민족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처럼 객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함께 모여 광야에 장막을 치고 밭에는 초막을 세운다. 그리고 낮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는 초막이나 장막에서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따라서 감사절의 기원은 초막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절의 의미라 할 수 있다. (편집부)

등정

- 이준은 목사는 2일(월) 북한구원운동 기도온 봉사 월례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전화번호 변경: 이영자 권사(11교구) 016-364-9319
- 득녀: 이겸순 성도, 이진영 성도(12교구, 이관규 장로 아들 가정) 9월 25일(월)
이상수 - 최주영 성도 (14교구)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 전도회(10월1일) 뱀뱀전도회(10월8일)
- 금주의 식사 제공: 배재송집사 임분도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간양예배	주일 오후 6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천국시민양성

사랑부 핸드벨 연주단 창단

매주일 연습 오후 1시~2시 901호

이영숙권사 (사랑부 부감)

지난주일(9월10일) 사랑부는 901호실에서 사랑부 핸드벨 연주단 창단예배를 드렸다. 이날 서명철 목사님은 옛날 다윗이 비파를 치며 여호와를 찬양할 때 사울왕이 큰 평안을 얻듯이 사랑부의 핸드벨 연주가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영혼의 맑은 가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한다고 창단예배에 참석한 모든 학부모님 및 교사들에



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재가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이 핸드벨 연주단은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또 한국 나사렛대학교에서 장애아동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 두 분의 지도하에 매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901호실에서 연습을 가질 예정이다.

사랑부 핸드벨 연주단의 첫 연주회는 금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개최할 예정으로 맹 연습에 돌입하고 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6 사명자 대회를 통해 사명자로서 승리케 하소서.
2. 민족적으로 조상송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케 한 죄를 용서하소서.
3.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을 우리 총회가 사용케 된 것을 감사
5. 개정된 사학법과 전시각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